



원산도 오름선해수욕장

너의 섬, 우리의 원산도 _____

원산도 구치해수욕장, 별안간 구름이 걷히고 '탁'
조명이 켜지듯 햇살이 드리워졌다.
거기 날 비취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던 하늘.
그 아름다웠던 순간을 기억한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총연장 6,927k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령해저터널이 개통했다. 덕분에 보령시 대천항에서 원산도는 6분, 태안 영목항까지 1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졌다. 아는 사람만 알던 서해의 숨은 보물 같은 원산도 역시 찾는 이가 크게 늘었다.

하늘에서 바라본 원산도는 마치 '뫼 산(山)'의 형상에 크고 작은 산, 해수욕장, 야영장, 소나무 숲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밤섬 부근은 간조 때가 되어 커다란 갯벌이 드러났는데, 반대편인 백사장에는 푸른 서해 바다가 완만히 펼쳐진다. 참 다채로운 섬이다. 원산도는 해안선 길이가 30km에 이른다. 이곳 백사장은 오봉산, 사창, 구치, 원산도, 저두 해수욕장으로 구분해 부르는데 같은 백사장이지만 저마다의 매력이 미묘하게 다르다.



Travel Talk | 해식애

원산도와 구치해수욕장은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해식애가 첫눈에 마음을 사로잡는다. 수천 번, 수만 번 파도와 바람에 부서지고, 뜨거운 태양을 고스란히 받으며 해안의 암석은 깎여나갔을 것이다. 뜨거운 눈물 흘리는 초대, 검은 숯덩어리의 모양으로 남은 해식애와 파식대는 그대로 자연의 작품, 장관을 이룬다.

가장 넓은 백사장을 지닌 원산도해수욕장은 서해안의 다른 해수욕장과 달리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 일출과 일몰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해수욕장을 둘러싼 울창한 소나무 숲, 원산도관광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소록도야영장도 잘 조성되어 있다. 서쪽으로 오르면 언덕배기에 피어난 역사가 고즈넉한 사창해수욕장도 만날 수 있다.

해수욕장 곳곳의 갯바위에는 물이 나갈 때를 기다려 낚시를 즐기는 이도 많다. 단, 마을 어촌계 양식장으로 출입을 삼가는 갯말이 붙은 곳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원산도의 갯벌과 갯바위는 꽃바래기, 청각, 말, 대숙, 낙지, 해초와 조개, 바다 생물로 가득하다. 다가서면 작은 구멍으로 발 빠르게 숨기 바쁜 녀석들을 잡으려 어린아이들이 고사리손을 놀린다.



- 1 대천항 일대 풍경
- 2 바다 생물로 가득한 갯바위
- 3 너른 갯벌이 형성되는 밤섬 부근
- 4 구치해수욕장의 해식애
- 5 '뫼 산(山)'의 형상을 지닌 원산도



Flavours of Boryeong

먹고 추억하라

대전항수산물시장



갈매기들 끼룩끼룩 우는 대전항 바로 앞에 자리한 수산물시장. 싱싱한 수산물을 바로 맛보거나, 현지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싶다면 꼭 둘러야 할 필수 코스다. 1층은 제철 수산물과 건어물을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즐비하고 2층은 식당가로 이뤄져 있다.



충청남도 보령시 대전항로 334
0507-1427-1241

바이더오



원산도 초전항 인근에 자리한 바이더오. 오션뷰 카페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테라스에서는 시루떡을 닦은 시루성이 보이고, 원산도의 '원'을 상징하는 커다란 조형물을 설치한 루프톱은 포토존으로 인기다. 선셋 에이드는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5길 89-23
0507-1426-5554

원산도 명가



원산도에서 맛집을 찾으려면 선촌선착장으로 향하면 된다. 원산도 명가의 인기 메뉴는 갑오징어볶음. 마침 채료가 딱 떨어져 낚지볶음을 주문했는데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이 불맛이 살아 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 영업시간도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로 길지 않으니 참고하자.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1길 39-2
0507-1420-6789

Under the Sea

영양 가득 우리 수산물

당진시



오독오독 맛이 살아 있는 '실치회'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실치회는 깔끔한 봄철 입맛을 되살려주는 당진의 별미다. 베도라치의 치어인 '실치'는 성미가 급해서 잡히면 참기름을 살짝 끼얹어 채소무침과 함께 한 입 넣으면 입안 가득 고소함이 느껴진다. 매년 4월 무렵 장고항에서 싱싱한 실치회축제가 열린다.

서산시



임금님께 진상했던 간월도 '어리굴젓' 서산 굴은 몸에 미세한 털이 많이 돌아 있어 어리굴젓을 담그면 양념이 고르게 배고 발효가 잘돼 맛이 일품이다. 서해안 갯벌에서 채취한 자연산 굴과 천일염으로 버무린 서산 어리굴젓의 매콤한 감칠맛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이다.

태안군

힘이 불끈 솟는 태안의 맛 '박속밀국낙지탕' 국물이 시원하고 기력 회복에 좋은 박속밀국낙지탕. 태안에서는 밥 대신 수제비나 칼국수인 '밀국'을 더 많이 먹었는데 여름에는 무 대신 박속을 넣었다. 태안 갯벌에서 많이 잡히는 세발낙지를 밀국에 넣어 부드러운 맛도 쫄깃한 맛이 일품이다.

보령시



가을의 대표 진객 '대하' 보령 앞바다에서 잡히는 자연산 대하는 크기도 맛도 좋기로 유명하다. 9월부터 11월이 제철인 대하는 담백하고 고소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 제철 대하는 소금구이가 제격인데, 대하가 불그스름할 때까지 뚜껑을 덮었다가 살짝 몸이 구부러지면 먹는 게 좋다. 먹고 난 후 해물칼국수나 해물라면으로 마무리하면 더욱 좋다.



서천군

서천 쌀밥 위에 한 장의 '김' 서천 김은 청정 서해 바다에서 갓 길어올린 신선한 원초만을 사용한다. 김 입자가 다른 김보다 약간 굵고 두꺼워 씹는 맛도 다르지만 먹으면 향긋한 굴 향이 전해진다. 밥맛 좋기로 소문난 서천 쌀로 지은 밥에 서천 김을 싸서 먹으면 잃었던 입맛이 살아난다.



구미가 당겨 구경 가고픈 당진

가볍게 떠났어도 알찬 행복 콕콕 채워서 돌아올 수 있는 곳, 당진. 서해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드문 곳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는 왜목마을. 지도상 서해에서 반도처럼 북쪽으로 불쑥 솟아 나와 있는 독특한 지형 때문에 동서쪽 드넓은 수평선으로 해가 뜨고 지는 장관을 볼 수 있다.

난초와 지초가 많이 자생해 붙은 이름 난지도는 수심이 완만하고 모래사장이 발달해 해수욕장으로서는 안성맞춤이다. 맑은 물과 고운 모래로 '서해 속 동해'라 불리며, 여객선을 타고 향하면 보이는 서해 다도해의 풍경은 가히 일품이다. 해수욕은 물론 바다낚시와 갯벌 체험까지 할 수 있어 사랑받고 있다. 언제 가도 정겨운 경치가 반겨주는 당진에서 행복을 콕콕 채워가자.

여행 코스

삼교호 관광지 솔미성지 면천읍성 왜목마을

Travel Tip

국내 최초 '낙농체험목장' 인증을 받은 태신목장(면천읍 성에서 차로 10분 거리)에서는 소젖 짜기와 송아지 우유 먹이기, 건조 주기 체험이 가능하다.

난지섬해수욕장 합덕제

수협 안내

당진수협
041-350-6640~2





당진제일꽃게장



20년 된 게장백반 전문점으로 소문난 맛집이다. 매년 봄에 연평도 등 서해에서 잡은 꽃게를 확보해둔다. 1년 동안 사용할 꽃게를 경매로 구매하여 급속 냉동 보관해 싱싱함과 맛 둘 다 잡는다. 게장백반을 주문하면 게장 외에 된장찌개, 김, 김치, 젓갈 등이 기본 반찬으로 나온다. 간장게장 뚜껑에 밥을 비벼 김에 싸 먹는 것도 별미다.

☎ 충청남도 당진시 백암로 246
☎ 041-353-6379

게눈감추듯



당진에서 손꼽히는 맛집. 한 가지 메뉴로 승부하는 간장게장 전문점이다. 간장게장을 주문하면 버섯볶음, 가지무침, 김치전, 도토리전, 청국장 등 맛갈스러운 반찬도 함께 나온다. 뜨끈한 솔밥에 탱글탱글한 게살을 얹으면 그야말로 게 눈 감추듯 먹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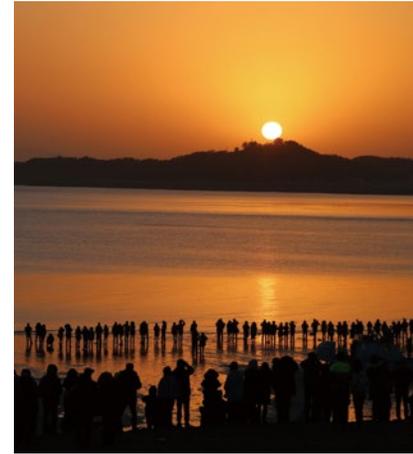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섬포구길 24-4
☎ 041-356-0036

팔각정회집



한진포구 인근 가성비 좋은 활어횃집으로 유명하다. 특정식을 주문하면 소리와 명게, 새우, 가리비 등 싱싱한 해산물 밑반찬이 짝 깔린다. 도둑하게 썬 광어, 우럭과 함께 주인장의 인심도 맛볼 수 있는 현지인 추천 맛집이다.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한진포구길 55-13
☎ 041-357-8764



왜목마을 해돋이·해넘이 감상

왜목마을과 한진내루에서는 해돋이는 물론 해넘이와 달님이까지 볼 수 있다. 수수하면서도 서정적인 서해의 해돋이를 감상해보자.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석문해안로 19-4
왜목관광지 일원
☎ 왜목마을번영회 041-354-1713



기지사줄다리기 민속축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민속축제다. 조선시대부터 해상 문물의 요충지였던 기지사에서 지역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고 줄을 당기면서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해왔다.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안섬포구길 11
☎ 기지사줄다리기축제위원회 041-358-4646-7

장고항 실치 축제

매년 3~4월 장고항 앞바다에서 잡히는 실치는 배도라치의 치어로 몸통이 가늘고 길어 실치로 불린다. 생명력이 짧아 봄철에만 현지에서 회로 맛볼 수 있는 실치를 먹기 위해 전국의 관광객들이 장고항을 찾고 있다.

☎ 충청남도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334-48
☎ 당진수협 지도과 041-350-6050



물 좋고 산 좋은 나만의 휴식처

보령 무창포해수욕장은 1928년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이다. 매월 음력 보름날과 그믐날을 전후로 두세 번, 해변과 석대도를 잇는 바닷길이 열린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찾아들고 바닥이 드러난 그 길을 걷노라면 용궁으로 향하는 것 같은 신비한 느낌에 젖어든다. 바닷길을 따라 게, 조개 등 해산물을 손쉽게 건져올릴 수 있는 색다른 체험도 기다리고 있다.

보령 곳곳에는 바다 말고도 반짝거리는 다른 여행지가 많다. 푸른 물빛만큼이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보령호를 따라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고, 댐이 생기고 산자락이 잠겨 물 위에 있는 산처럼 보이는 양각산에 오를 수도 있다. 어디든 입맛에 맞게 고르면 되는데, 어디서든 한눈팔 수 없는 근사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수협 안내

보령수협
041-931-0250
선어위판장
041-933-7185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농어민후계자횡집



횡감은 섬에서 태어나 어업을 이어온 주인장이 보령수협에서 직접 공수한 계절별 신선한 활어를 사용한다. 경험으로 고른 활어회의 쫄깃함과 신선도가 단연 으뜸이다.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겹질 있는 회는 별미 중의 별미다. 직접 만든 밀반찬이나 튀김, 미역 맑은탕과 매운탕도 훌륭하다.

- 충청남도 보령시 큰오랏길 80
- 041-932-2767

대천간장게장



게장은 서해에서 잡은 봄 꽃게를 배에서 바로 급냉동해 사용한다. 이 집의 게장은 짜지 않고 풍부한 감칠맛을 내는데, 그 맛의 비법은 천연 과일 효소로 게장을 담그는 것에 있다. 살과 알이 딱 찬 신선한 꽃게와 비법 양념이 잘 어우러지면 서 숙성된 게장의 참맛을 만끽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보령시 신설1길 79
- 041-932-0708

오천항수산물판매센터 2호점



직접 잡은 싱싱한 키조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대표 메뉴인 키조개 코스는 키조개 관자회, 관자무침, 두루치기, 사부사부 등 관자로 맛볼 수 있는 모든 요리가 상에 오른다. 관자를 버터에 살짝 구워 먹거나 두루치기 양념에 볶아 먹는 볶음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맛이다.

-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해안로 782-9
- 041-933-2933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주꾸미·도다리 대잔치

보령의 대표 봄철 수산물인 주꾸미와 도다리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다. 맨손 주꾸미 잡기, 낚시 고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 10 무창포해수욕장 일대
- 무창포관광협의회 041-936-3510



보령 천복굴 축제

서해안 제일의 별미로 손꼽히는 천복굴을 직접 맛볼 수 있으며,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축제다. 천복면 장은리 굴단지 내에서 12월경에 열린다.

- 충청남도 보령시 천복면 장은리 천복굴단지
- 천복면사무소 041-930-0804

무창포 대하·전어 축제

무창포항구와 해수욕장 인근에서 매년 9월 중순~10월 초에 열리는 축제다. 천수만에서 잡히는 싱싱한 대하와 전어를 맛보며, 갯벌에서 대하를 잡는 체험도 할 수 있다.

-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열린바다1길 10 무창포해수욕장 일대
- 무창포관광협의회 041-936-3510



보령의 '진주' 대천 서부

'보령'보다 더 이름난 대천해수욕장과 보령머드축제. 서해안 해변 중 여행객이 가장 많이 오는 대천해수욕장은 얇은 수심과 함께 파도도 잔잔해 해수욕을 즐기기에 좋다. 모래 또한 동양에서 유일하게 조개 껍데기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잘게 부서진 것으로 아주 부드럽다. 백사장 너머 숲은 울창하고 아늑하고, 뜨거운 햇살을 가릴 만큼 넉넉하다. 매년 7월 이곳에서는 머드축제가 열리는데, 세계적인 축제로 이미 너무 유명하다.

죽도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자그마한 섬으로, 기암괴석과 울창한 해송 속에 상화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식 전통 정원으로 2km의 지붕형 '회랑'을 설치해 날씨에 상관없이 산책할 수 있다. 푸른 바다, 해송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수협 안내

대천서부수협
041-931-3354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대천가자조개구이



싱싱한 조개구이뿐만 아니라 육해공 셀프바와 굴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가성비 맛집으로 유명하다. 치킨, 새우튀김, 삼겹살, 양념돼지갈비, 떡볶이, 토마토파스타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어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다.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8길 49
041-933-8882

한울타리



대천에서 먹는 조개구이가 식상하다면 생선구이는 어떨까. 주문 즉시 구워져 촉촉하고 담백한 생선을 한 번 더 리필해 먹을 수 있다. 노릇노릇 '겉바속촉' 생선구이에 밥을 한 공기만 먹는 건 반칙이다. 밥도둑이 따로 없는 생선구이에 함께 나오는 부대찌개의 맛도 훌륭하다.

충청남도 보령시 남대천로 51
041-936-0996

풍미꽃게장게국지 본점



게국지는 충남의 향토 음식으로, 걸절이와 게, 단호박 또는 청동호박을 함께 넣어 끓인 찜개다. 시원하고 얼큰하면서도 달콤하다. 조미료의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깊은 풍미가 느껴져 국물을 계속 먹게 된다. 주메뉴를 시키면 나오는 양념게장도 탱글탱글하니 밥맛을 톤운다.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로 64
0507-1339-6442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보령머드축제

대천해수욕장에서는 해마다 내·외국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머드축제를 연다. 참가자 모두가 천연 머드를 온몸에 바르고 함께 덩굴며 하나가 되는 체험형 축제다.

충청남도 보령시 신항동 대천해수욕장 일대
관광안내소(머드광장) 041-930-0883



대천해수욕장 집트랙 체험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집트랙 체험도 할 수 있다. 시원한 바다를 향해 달리며 온갖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 전망대 스카이라운지에서 해수욕장의 전망을 감상할 수도 있다.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10길 79 집트랙타워
041-934-3003

군현 갯벌 체험

넓은 갯벌에서 싱싱한 조개와 해산물을 캐 수 있는 체험. 갯벌 체험은 물론 독살 체험, 무인도 체험, 바다낚시를 즐길 수 있고 더불어 아름다운 바다도 감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보령시 신항동 521
0507-1400-4188



역사와 자연의 숨결을 찾아 떠나는 여행

불쑥 찾아와도 넉넉한 마음으로 반겨주는 곳, 생명력 넘치는 드넓은 갯벌과 서해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어서 오라고 반기는 이곳은 서산이다. 저녁 노을빛이 바다까지 붉게 물들이는 낙조로 유명한 간월암은 바닷물이 밀려오면 섬이 되고, 빠져나가면 다시 물이 되는 신기한 곳이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왕사 무학대사가 달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유래한 이름이다. 물길에 열려야만 들어갈 수 있어 물때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읍성 중 가장 잘 보존된 평성이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의 현장이기도 하여 해마다 많은 순례객이 찾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 구수한 인심에 반해 돌아간다는 서산으로, 같이 가요!



수협 안내

서산수협
041-671-8808
수협바다마트
041-675-0555
안흥제1위판장
041-675-0553



서산버드랜드
©서산시청



대산읍 솟대
©서산시청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산해별미



대표 메뉴는 우럭젓국이다. 쌀뜨물에 우럭포를 넣고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데 대파, 양파, 고추, 다진 마늘 등이 듬뿍 들어가 깊은 맛을 낸다. 부드러우면서 쫄득한 식감의 우럭포와 시원한 국물이 해장용으로 딱 좋다. 어리굴젓, 백김치, 마늘장아찌 등 밑반찬도 깔끔하게 잘 나온다.

-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사동5로 10
- ☎ 041-663-7853

안흥일품꽃게장



서산에서 꽃게장으로 이름난 식당이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간장게장과 단호박이 들어가 끝맛이 부드러운 꽃게탕이 일품이다. 꽃게로 차린 바다 한 상에 돌솥밥을 먹고 따뜻한 물에 불려놓은 송능까지 마시고 나면 한 끼 제대로 먹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 ☎ 충청남도 서산시 양열로 212
- ☎ 041-681-8601

명지해물찜칼국수



칼국수에 홍합과 낙지, 게가 듬뿍 들어가 국물이 진하고 시원하다. 문어, 오징어, 이리, 조개, 꽃게 등이 들어간 해물찜은 20여 가지 양념이 들어간 특제 소스로 어우러져 매콤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하다. 맛의 단계를 순한 맛, 보통, 매운맛으로 고를 수 있다.

- ☎ 충청남도 서산시 대신읍 물안2길 6
- ☎ 041-662-3938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지곡왕산포 서산 갯마을축제

서산을 대표하는 바다 축제다. 맨손 물고기 잡기, 도시 어부 낚시, 청정 바지락 캐기 등의 체험이 마련돼 있다. 관광객이 직접 잡은 수산물을 그 자리에서 요리해준다.

-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왕산포구 일원
- ☎ 왕산어촌계 041-662-7118



삼길포 우럭축제

전국 유일의 우럭을 주제로 한 친환경 바다 체험 축제다. 우럭 시식, 우럭 맨손 잡기, 가족 단위 물총대첩, 에어바운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 ☎ 충청남도 서산시 대신읍 화곡리 삼길포항 일대
- ☎ 삼길포축제위원회 070-7371-0846

서산 빨낙지 먹물축제

별미인 서산 낙지를 맛볼 수 있는 축제다. 낙지는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고 한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낙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 거리가 마련된다.

-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 중리포구 일대
- ☎ 중리어촌체험마을 041-665-9498



명품 해변에서 황홀한 낙조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태안에는 광활한 해변이 펼쳐진다. 해변에는 114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 수많은 섬이 어우러지며 펼쳐내는 주옥같은 풍경은 이곳에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이 있는 이유를 넉넉히 알려준다. 500km가 넘는 해변에 죽 늘어선 해수욕장을 찾다 지도에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주렁주렁 포도송이가 열린다.

만리포해수욕장은 고운 모래와 수심이 얕아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다. 만리포와 '형제 해수욕장'인 천리포해수욕장은 아늑한 분위기를 품고 있고, 가까운 곳에 백리포해수욕장도 자리한다. 인적이 뜬 한 해변, 고즈넉한 해변, 이국적인 해변 등 골라 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어디서나 바닷가에 붉은 옹단을 펼쳐놓은 듯한 황홀한 낙조를 감상할 수 있으니, 이번 주말은 태안으로 떠나자.



수험 안내

태안남부수험
041-671-3223
몽산포위판장
041-672-2137



신두리해안사구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 이순옥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충남수산회집



서해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 대하, 주꾸미 등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메뉴를 항상 만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하면 그날 들어온 싱싱함을 누구보다 먼저 맛볼 수 있다. 신선함뿐만 아니라 맛도 확실하고, 친절함까지 방문할 이유가 충분하다.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드르니길 145-4
☎ 041-674-6859

이원식당



60여 년 전통의 박속밀국낙지탕 전문점이다. 태안군 이원면 바닷가에서 잡은 낙지를 이용해 싱싱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 박의 속을 끓여낸 박속과 무, 감자, 마늘, 파 등을 넣고 끓인 육수에 낙지를 살짝 익혀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원이로 1539
☎ 041-672-8024

화해당



미쉐린가이드에 소개된 간장게장맛집이다. 채소 육수와 간장을 혼합해 만든 화해당만의 간장으로 맛의 차별화를 두었다. 따뜻한 밥에 탱탱하고 단맛이 도는 게살을 얹어 먹으면 밥 한 공기 언제 사라졌는지 알 수 없다.

☎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901-8
☎ 041-675-4443

Editor's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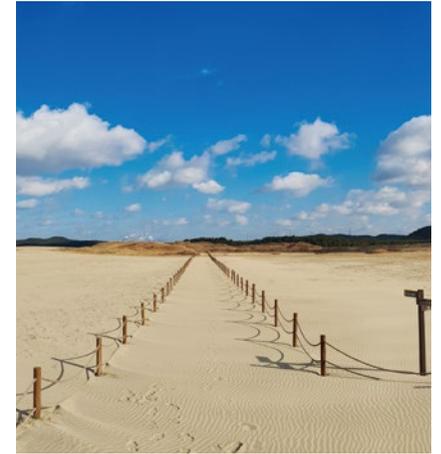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국제 모래조각 페스티벌

신두리해수욕장의 수려한 해변 경관과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 모래조각 경연대회를 비롯해 야영, 모래썰매장, 맨손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해수욕장 일원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41-670-2766



신두리해안사구 탐방

국내 최대의 해안사구이자 천연기념물이다. 길이 3.4km로 광활하게 펼쳐지는 미세한 모래사막에서 색다른 산책을 즐겨보자. A, B, C 3개 코스가 있으며 해설도 들을 수 있다.

☎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해변길 201-54
☎ 신두리사구센터 041-672-0499

별주부마을 독살 체험

독살은 돌로 만든 독에 갇힌 물고기를 손이나 그물을 이용해 잡는 전통어업 방식 중 하나다. 태안 별주부마을의 독살 체험은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인기 만점이다.

☎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별주부길 102
☎ 별주부마을 041-672-3359



멋 따라 맛 따라 안면도로

안면도는 태안반도 서남단에 위치하며 우리나라에서 여섯 번째로 큰 섬이다. 태안 여행은 크게 남부 안면도와 그 외 태안으로 나뉜다. 안면대교가 이 둘을 잇는데 다리를 건너자마자 백사장항에 닿는다. 이름처럼 고운 모래밭이 있는 백사장항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꽃지해수욕장까지 걸을 수 있다. 예로부터 백사장을 따라 해당화가 지천으로 피어나 '꽃지'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해수욕장은 할미, 할아비 바위를 배경으로 태양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찬란한 저녁노을을 빛어낸다. 특히 안면도는 안면도 자연휴양림으로도 유명한데, 수령 100년 내외의 소나무 천연림이 형성돼 있어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솔향기에 몸과 마음이 맑아진다.



수험 안내

안면도수험
 041-673-9902
백사장위판장
 041-673-5040



백사장항
 ©태안군청



꽃지해수욕장
 ©태안군청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판죽통나무집식당



30년 이상 된 가게에만 주어지는 충남 최초의 '백년가게'로 대표 메뉴는 게국지와 게장이다. 큼지막한 꽃게와 배추, 새우, 호박 등이 들어간 게국지는 그 시원함이 꼭 한번 먹어봐야 할 맛이다. 꽃게는 봄철 알이 딱 찬 꽃게를 대량 구매해 1년 동안 사용한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조운막터길 23-22
041-673-1645

일송꽃게장백반



싱싱한 서해안 꽃게와 천연재료로 담근 간장게장은 입맛 없는 사람도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게 한다. 매콤하고 칼칼한 음식이 당긴다면 양념게장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태양초 고춧가루를 사용해 감칠맛이 난다. 추운 겨울에는 시원하고 깔끔한 국물 맛이 일품인 꽃게탕을 추천한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안면대로 2676
041-674-0777

수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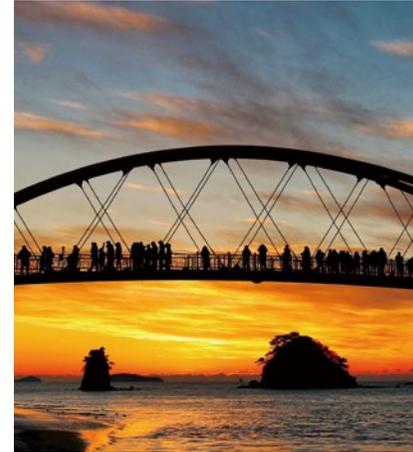


식당을 운영한 지 45년이 훌쩍 넘는 안면도 게국지 맛집이다. 알이 많고 살이 풍부한 꽃게를 사용해 오랜 단골이 많다. 양념게장, 간장게장과 함께 대하장도 맛볼 수 있으며, 김치나 채소, 쌀 등은 국내산만 사용한다. 세트 메뉴에는 돌게장을 서비스로 제공한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그네들길 147
041-673-0001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꽃지 저녁노을축제

우리나라 3대 일몰 명소 중 하나인 안면도 꽃지해변에서 매년 마지막 날 저녁노을 축제를 연다. 서해안 제일의 황홀한 낙조를 바라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 꽃지해변 일대
관광과 041-670-2766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

매년 가을,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하를 마음껏 즐기는 축제다. 안면도는 전국 최대 자연산 대하 집산지로 제철 맛은 대하를 가장 맛있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1길 126
백사장대하축제추진위원회 010-2433-2283

대야도 어촌체험

살아 있는 갯벌의 보고, 천수만을 끼고 있는 대야도 마을에서는 가두리낚시, 갯벌(바지락, 고둥, 소라, 낙지 등) 체험, 독살 체험 등 어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대야로 349 체험안내센터
대야도어촌체험마을 041-673-9673



철새와 갈대가 어울지는 생태 어촌

굽이굽이 흐르는 금강이 서천의 몸통을 가로지른다. 금강하구는 철새의 낙원이다. 이곳은 매년 겨울이면 철새 40여 종, 50여만 마리가 찾아와 장관을 이룬다. 광활한 대지와 풍부한 수자원과 어족 자원, 그리고 풍성한 갈대숲은 철새 수만 마리가 머무르며 쉽게 먹이를 찾을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천의 '한산모시짜기'는 201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중요한 우리 민족문화의 정수 중 하나다. 모시는 일련의 고된 과정, 4,000회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탄생하는 옷감이다. 한산모시관에서는 기능보유자가 직접 모시를 짜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정겨운 풍경이 몽글몽글하게 마음을 사로잡는 서천에서, 고즈넉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다.



수협 안내

- 서천군수협 041-956-6880
- 장항위판장 041-956-6882
- 수산물직매장 070-4163-3886



장항 스카이워크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 김지호



장암리 갯벌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 김지호

Taste

바다 한 상 眞맛집



원조신설아구집



현지인이 인정하는 오래된 맛집이다. 수협 경매를 통해 들여온 해산물에 주인장의 솜씨가 더해져 신선하고 집밥 같은 구수한 맛의 아구탕이 나온다. 독특하게 된장이 들어가서 아주 익숙한 그리고 잊지 못할 맛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기본 반찬이 어마어마하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16번길 19
041-956-2150

장터맛집



낙지와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낙지삼계탕으로 유명하다. 엄나무, 헛개나무, 양파껍질, 대파 뿌리, 닭발, 대추, 인삼, 황기 등 건강한 재료로 깊고 진한 육수를 만들었다. 재료와 정성을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저렴한 가격으로 몸보신을 할 수 있어 현지 주민도 많이 찾는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74
041-957-0624

할매온정집



서해안 생아귀만 쓰는 아귀 전문점이다.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국물과 아귀의 쫄깃함을 맛볼 수 있다. 콩나물보다 마나리가 많이 들어 있어 비린맛이 없으며 아귀의 내장까지 맛볼 수 있다. 진하고 깊은 국물의 비법은 이 집만의 태양초와 참기름에 있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47번길 20
041-956-4860

Editor's Choice

두고두고 추억이 될 즐길 거리



자연산 광어·도미축제

서천 앞바다에 5월이 오면 광어, 도미잡이가 한창이다. 팔딱이는 자연산 광어와 도미를 즐기면서 맨손 광어잡기, 머그컵 페인팅 등 즐거운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다.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58
서면개발위원회 041-952-9123



선소리 갯벌체험

선소리에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조개잡이, 개잡이를 비롯해 다양한 갯벌 체험을 운영한다. 캠프장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단위 여행에 좋다.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선소리 59-1270
선소리갯벌체험장 010-9520-5212

장항항 수산물 골감축제

꼰뚜기와 갑오징어를 줄인 이름으로 관심을 모으는 골감축제는 싱싱한 수산물 시식행사, 먹거리촌 및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즐거움으로 매년 5~6월 중 장항항 일원에서 펼쳐진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물양장 일원
서천군어민회 041-956-7383



청정 자연이 활짝 꽃피우는 곳

서천 서부는 바다로 길게 둘러싸여 서천에서 이름난 바다 관광지가 모여 있는 곳이다. 마량포구는 한 자리에서 해넘이까지 감상할 수 있다. 황금빛으로 물이 들며 잠기는 낙조와 서서히 뜬 들이며 바다를 물들이는 은은한 일출은 감동을 두 배로 안겨준다. 만과 갯이 잘 발달한 마량포구 일원은 경관도 좋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서천김 양식장이 있고, 어민들이 갯 잡아온 싱싱한 해산물을 경매하는 어판장도 자리하고 있다. 양젓맛은 오죽도가 지척에 있어 더욱 아름다운 마량리 동백나무숲.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해 바다는 쪽빛이라 할 만큼 유난히 맑은 곳이다. 춘장대해수욕장도 청정 자연을 그대로 품고 있어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자연학습장 중 하나다.



수험 안내

서천서부수험
 041-952-1860
 홍원위판장
 041-952-3659



춘장대해수욕장
 ©서천군청



춘장대해수욕장
 ©한국관광공사 사진갤러리 김지호



마랑포구칠구지횃집



20여 년 한자리를 지켜온 현지인이 많이 찾는 맛집이다. 서천 지역에서 나는 자연산 주꾸미, 광어, 우럭, 꽃게, 전어 등 다양한 제철 메뉴를 제공한다. 서천이 고향인 주인장은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상에 올린다. 대표 메뉴 중 하나인 회덮밥은 신선한 자연산 광어가 푸짐하게 들어간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95
☎ 041-951-5630

섬마을횃집



2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유지해온 바다 전망의 서천 대표 맛집으로 서천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해산물을 사용한다. 신선함은 물론 대하구이, 키조개, 멍게, 물회 등 기본 반찬이 끝이 없을 정도로 푸짐하다. 소고기, 민물새우 등 20가지 재료로 맛을 낸 매운탕과 지리복탕도 빼놓을 수 없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576
☎ 041-951-9918

서산회관



미나리가 푸짐하게 올라가는 매콤한 주꾸미철판 구이 맛집이다. 향긋한 미나리에 탱글탱글한 식감이 살아 있는 주꾸미까지 한 번에 맛볼 수 있는 곳이라 봄철에 더욱 문전성시를 이룬다. 양념이 자극적이지 않아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마랑포구 동백정에 위치해 바다 전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318
☎ 041-951-7677



동백꽃 주꾸미축제

주꾸미잡이가 한창인 3월 말부터 4월 초 마랑진항 일원에서 열리는 축제로, 어선에서 갓 잡아올린 초봄의 주꾸미가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마랑진항 일원
☎ 서면개발위원회 041-952-9123



홍원항 전어·꽃게 축제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서해 바다의 전어. 전어는 가을이 제철이다. 매년 9~10월에 열리는 축제, 산란기 전어의 참맛을 즐길 수 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항 일원
☎ 관광축제과 041-950-4016

마랑포 해넘이·해돋이

마랑포구에서는 해넘이와 해돋이를 모두 감상할 수 있다.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개최되고 새해 떡국 나눔, 버스킹 공연,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58
☎ 서면개발위원회 041-952-9123

